



주저앉은 태극전사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 한국과 알제리의 경기가 열린 23일 오전(한국시간) 포르투알레그리의 베이라하우 주경기장에서 손흥민 등 선수들이 2대4로 완패한 후 허탈해하고 있다. /연합뉴스

벨기에전 이겨도 자력진출 불가...러시아가 알제리 꺾어줘야

한국 16강 진출 경우의 수 따져보니 러시아, 알제리와 비긴다면 벨기에 4골차 이상 이겨야



한국 축구 대표팀이 알제리전의 안타까운 패배를 딛고 실낱같은 16강 가능성에 매달린다. 한국은 23일(한국시간)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열린 2014 브라질월드컵 본선 H조 2차전에서 알제리에 2-4로 저 조 최하위로 떨어졌다. 현재 한국은 1무1패로 승점 1(-2골)에 머물러 벨기에(2승·6점), 알제리(1승1패·3점·+1골), 러시아(1무1패·1점·-1골)에 뒤지고 있다. 한국은 이날 경기에서 골을 많이 내주며 패배해 사기가 가라앉은 데다가 자력으로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아예 사라졌다. 한국은 벨기에와의 3차전에서 패배하면 승점 1에 머물러 그대로 탈락한다. 그러나 한국이 벨기에를

꺾을 경우에는 작은 희망이 있어 아직 16강행을 포기할 수 없다. <H조 최강 벨기에 완파 가능할까>=한국은 어떤 경우에도 많은 골을 터뜨리며 벨기에를 이겨야 하는 부담을 안았다. 하지만 상대 벨기에에는 H조의 최강으로 꼽히고 있다. 대량 득점을 기대하기에 앞서 벨기에를 이기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이다. 벨기에에는 로멜루 루카쿠, 에덴 아자르, 드리스 메르텐스, 케반 더브라위너, 마루안 펠라이니 등 스타들이 뿜어내는 화력이 세다. 한국 수비수들은 실점을 막기 위해 러시아, 알제리와의 대결 때보다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도 마르크 빌모츠 벨기에 감독은 16강 진출을 확정할 까닭에 힘을 아끼겠다는 뜻을 밝혔다. 빌모츠 감독은 그간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한 요원들을 중심으로 전열을 짜겠다고 밝혀 한국에는 불행 중 다행이다. <알제리가 러시아 꺾으면 '탈락'>=알제리가 러시아와의 3차전에서 러시아를 꺾으면 한국의 벨기에전 승리는 의미가 사라진다. 한국이 벨기에를 꺾어 승점 4를 쌓더라도 벨기에와 알제리(이상 6점)에 16강 출전권이 주어지는 조 1, 2위를 내주기 때문이다. <러시아도 승점 1로 탈락한다.> 불안하게도 알제리는 벨기에와의 1차전 패배를 딛고 이날 승리해 상승세를 타는 반면 러시아는 한국과의 1차전에서 비긴 뒤 벨기에와의 2차전에서 저 주눅이 든 상태다. <러시아가 알제리 꺾으면 '러시아와 골득실 다툼'>=러시아가 알제리를 꺾고 한국이 벨기에를 이기면 한국이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살아난다. 이 때는 알제리가 1승2패(3점)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한다. 한국과 러시아가 1승1무1패, 승점 4로 동률을 이루 벨기에(6점)에 이은 조 2위를 놓고 골득실로 다툰다. 이런 상황이 와도 한국은 알제리전에서 많은 골을 허용한 탓에 다소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다. 러시아가 몇 골차로 알제리를 이기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벨기에를 상대로 무조건 골을 많이 넣고 봐야 한다. <알제리-러시아 무승부 때 '알제리와 골득실 다툼'>=한국이 벨기에를 꺾고 러시아와 알제리가 비기는 상황에서도 16강 가능성은 발생한다. 이 때는 러시아가 2무1패(2점)로 최하위로 조별리그를 마친다. 한국은 알제리와 1승1무1패, 승점 4로 동률을 이루 골득실을 따져야 한다. 현재 알제리와 한국의 골득실 차는 3골인 까닭에 한국은 벨기에를 4골 차 이상으로 완파해야 벨기에(6점)에 이어 조 2위를 확보, 16강 토너먼트에 나갈 수 있다. /연합뉴스

땀땀땀인 흥명보호...흔들려도 '리더'가 없다

흔들리고 또 흔들렸지만 흥명보호에서 중심을 잡아줄 '리더'는 없었다. 흥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3일(한국시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알제리에 2-4로 완패했다. 벨기에와의 1차전에서 역전패한 알제리가 보다 공세적인 플레이를 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기였다. 한국 선수들은 러시아전 패처럼 뒤로 물러서 수비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알제리의 공세가 예상 밖으로 거셌다. 끊임없이 한국 진영을 몰아친 끝에 전반 26분 이슬람 슬리마니(스포르팅CP)가 선제골을 넣었다. 알제리처럼 선수들의 개인기만을 앞세

운 팀을 상대할 때에는 초반에 기선제압을 해야한다는 것은 축구에서 '상식'에 가깝다. 상대가 뜻대로 플레이할 '판'을 만들어 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흥명보호는 선제 실점한 시점 선택의 기로에 섰다. 공격으로 맞붙을 놓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친 몸싸움을 해서라도 상대의 기를 꺾어야했지만 그라운드에서 이 말을 외칠 리더는 없었다. 홍정호(아우쿠스부르크)와 김영권(광저우 헝다) 두 젊은 중앙 수비수는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그간 보여줬던 것과는 달리 위기 상황 앞에서 허둥지둥하기만 했다. '중원의 사령관' 기성용(스완지시티)은 볼 키핑을 하는 데에만 급급했고 러시아전에서 최고의 수비력을 보였던 수비형 미드

필더 한국영(가시와 레이솔)은 갈 곳을 잃었다. 구자철(마인츠)은 후반전에 추격골을 넣기는 했지만 전반전에 주장으로서 동료들의 정신적 붕괴를 막지 못했다. 이날 선발 명단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는 박주영(아스널)이었다. 2006 독일 월드컵,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경험한 그는 흥명보호에서 '큰 경기 경험'도 가장 많은 선수다. 그는 위협적인 장면을 전혀 연출하지 못했다. 한국의 전반전 슈팅 수는 '0'이었다. 선택할 시점을 놓친 흥명보호는 침몰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선제 실점하고서 12분만에 2골을 더 내줬다. /연합뉴스

한국축구 체면 살린 손흥민 '월드클래스' 입증

손흥민(22·레버쿠젠)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체면을 그나마 살렸다. 손흥민은 23일(이하 한국시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의 베이라하우 주경기장에서 열린 알제리와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 H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한국의 첫 골을 기록했다. 한국은 전반에만 3골을 내주며 패색이 짙었다. 이 가운데 손흥민은 후반 5분 하프라인 근처에서 기성용(스완지시티)이 길게 넘겨준 볼을 받아 문전에서 왼발로 차 넣었다. 한국이 구겨진 자존심을 다소 살리는 순간이었다. 후반 이른 득점으로 한국에는 대역전극에 대한 희망도 살아났다. 그러나 한국은 후반 17분 한 골을 더 내주고 끝내 2-4로 지고 말았다.

결과엔 아쉬움이 남지만 손흥민은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으로 알제리를 뒤흔들었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중앙, 오른쪽을 가리지 않고 그라운드를 누볐다. 일단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빠르게 상대 진영을 누비는 터라 알제리 수비진은 진땀을 빼야 했다. 골 장면에서는 손흥민의 결정력이 돋보였다. 손흥민은 골대를 등지고 볼을 받고서 알제리 골키퍼 다리 사이로 볼을 넣는 재치를 발휘했다. 이 골로 손흥민은 개인 통산 월드컵 본선 첫 골을 기록했다. 한국 축구로 확대해 보자면 월드컵 본선 통산 30번째 골이기도 했다.

골 한 방으로 손흥민은 자신에게 주어진 '에이스'라는 칭호가 틀린 게 아니었음을 똑똑히 입증했다. 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보여준 활약 덕분에 월드컵 전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골잡이로 주목받았다. 조별리그 상대국에는 1호 공격대장으로 꼽혔다. 18일 러시아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손흥민은 3차례 슈팅을 시도해 대표팀에서 가장 많은 공격 기회를 잡았다. 위협적인 움직임 때문에 공격 포인트 없이도 맨오브더매치(MOM)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서 1골, 1도움을 올린 이근호(상주)를 제외하면 한국 공격직이 대체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손흥민의 고군분투는 더욱 빛났다. /연합뉴스